

## 대학 진학 시 대학 및 학과 선호도 타협 유형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

김 지 근                      이 지 원                      이 기 학<sup>†</sup>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대학진학 시 대학 및 학과에 대한 선호도와 선호도 타협 유형에 따라 대학생활적응에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의 승인을 받아 한국교육재단연구 7차년도 조사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 4년제 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2147명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Gottfredson(1981)의 진로타협이론에 근거하여 대학 및 학과 선호도를 바탕으로 선호도 타협 유형을 4개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대학 및 학과 선호도 및 각 타협 유형에 따라 대학생활적응 수준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학 진학 시 선호하는 대학 및 학과로 진학한 집단은 대학생활적응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선호도 타협 유형에 있어서는 '대학 선호-학과 선호', '대학 타협-학과 선호' 유형이 높은 대학생활적응 점수를 나타냈다. 반면, 선호 대학에 진학한 경우 수업 및 과제를 어렵게 느끼고, 학점에서 유의미하게 낮은 점수를 보고하였으며, 타협 유형 중 '대학 선호-학과 타협' 집단이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낮은 학점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의 함의와 진학시점의 대학 및 학과 선호도가 대학생활적응에 주는 시사점,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하였다.

주요어 : 대학 선호, 학과 선호, 진로타협이론, 대학생활적응, 대학생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기학,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 50로  
Tel : 02-2123-2445, E-mail : khlee2445@yonsei.ac.kr

대학생들은 발달 단계상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접어드는 시기에 있으며,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자기개념을 확립하고(Erikson, 1968) 능동적, 자발적 태도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업을 달성해야 한다(Lautz, Hawkins, & Perez, 2005). 특히 학교에서의 적응은 학생의 특성과 학습 환경의 다차원적 성격 및 요구 간의 교육적 적합성을 최대화하는데 필요한 학교 순응 혹은 적응의 정도로 정의될 수 있는데(Spencer, 1999), 높은 학교생활적응 수준은 긍정적인 태도와 원만한 대인관계, 높은 학업 동기 및 바람직한 행동특성을 형성함으로써 학생 개인의 성장은 물론 학교와 사회발전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학교육이 보편화되면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취업 준비 등을 위해 대학에 머무르며 대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교육부 통계, 2013),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 수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학생활적응은 대학 환경에서 요구되는 과업을 달성하고(신지영, 2000) 능동적으로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조화진, 2005), 발달 과정 상 청년 후기 및 성년 초기에 해당되는 대학생들의 적응 문제는 이후 성인기의 적응을 예측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과거에는 주로 학업 성취수준을 통해 대학생활 적응 수준을 평가하였으나(Gerdes & Mallinckrodt, 199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을 둘러싼 환경이 적응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Arkoff, 1968),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개인의 능력을 다차원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적응수준 평가에 중요한 측면이 될 수 있다. 이에 Baker와 Siryk(1984)은 대학생

활적응을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적응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실제 연구결과들에서도 대학생 활적응은 다양한 심리, 사회적 변인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컨대 황매향과 박혜영(2005)의 연구에서는 대학생 활적응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으며, 진로선택이나(남아란, 하정, 2013) 구체적인 진로행동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개인의 감정조절 및 자아탄력성(박진영, 2012), 성격강점(유찬우, 2011), 개인의 통제력,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스트레스 대처방식(김영린, 이기학, 2012; 양현정, 2003) 등도 대학생 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서적 측면에서는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에는 대처능력이 감소하여 적응 수준이 낮아진다는 결과가 보고되었고(한영민, 2010),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 가족 응집력 등의 요인은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효원, 2005; 이학수, 2010).

이처럼 대학생 활적응은 다양한 심리사회적 변인들과 상호작용하며 대학생들의 진로 및 인성발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생 활적응에 있어 무엇보다 대학 및 학과 선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진학에 있어 대학의 서열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학벌주의가 만연해있고(오호영, 김승보, 정재호, 2006), 대학 학력이 이후 개인의 직업적 성공이나 사회적 지위, 행복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되는 경향이 있어(강인원, 전성일, 2003; 유혜은, 2010), 명성이 높고 인기 있는 대학과 학과에 진학하고자 하는 경쟁이 치열

해지면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진학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원치 않은 대학과 학과에 진학하게 되면 대학 진학 후 학교나 학과에서 요구하는 태도나 자질에 자신을 적응시키는 수준에서 소극적인 차원의 적응을 하게 되며, 대학 및 학과에 대한 애교심이나 자신감이 감소하여, 결국에는 적응상의 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다(허철수, 1989). 따라서 대학입학 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개인에게 매우 중대한 문제가 되며, 이를 위해 각 개인은 대학 및 학과 선택과 관련한 진로 타협의 과정을 거친다.

진로 타협은 진로선택 의사결정과정의 최종 단계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것으로(황매향, 김계현, 2001; Leung & Plake, 1990), 여러 목표들 가운데 덜 중요한 것은 포기하고,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Gati(1993)는 타협과정에 대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연결해주는 진로 의사결정이라고 하였으며, Ginzberg, Ginsburg과 Herma(1951)는 외적인 조건에 따라 개인의 내적 욕구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최적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타협이라고 하였다. 일찍이 Super(1953) 또한 거의 모든 진로선택 의사결정 과정에 타협이 포함되며, 타협은 개인적 요인인 자아 개념과 사회적 요인인 현실적 요건 사이에서 개인에게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타협에 따른 선택은 타협 이후의 학교 선택이나 진로결정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였다.

Gottfredson(1981)은 개인의 인지 성장 발달에 따라 진로자아개념 인식 수준이 달라지며, 각 발달 단계를 거치면서 자아개념과 현실 요건 간에 양립이 불가능한 진로대안을 제외시키는

것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하면서 진로결정과정에서의 제한-타협 이론을 정립하였다. 이처럼 자아개념은 타협 과정에서 중요한 내적 기준이 되고(Vandiver & Bowman, 1996) 자아개념의 인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능력, 흥미, 다양한 환경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한계 설정을 하고 대안을 구성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때 특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자아개념의 요소로는 성역할, 사회적 지위, 흥미의 세 측면이 있는데 그 우선순위는 여러 연구들을 통해 다르게 보고되어 왔다. 성역할이 사회적 지위나 흥미보다 우선시 된다는 결과가 있는가 하면(Harmon, 1971; Scott, Fenske, & Maxey, 1974), 흥미나 사회적 지위가 다른 요소들보다 타협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도 보고되어 온 바(Hesketh & Durand, 1990; Hesketh, Elmslie, & Kaldor, 1990; Leung & Plake, 1990), 진로의사 결정과정 중 타협에 영향을 끼치는 세 가지 요소의 우선순위는 일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근 연구에서는 일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타협의 보편적 우선순위에 초점을 두거나 어떤 사람들이 타협을 잘하는지에 대한 관심 보다는, 개인이 각 우선순위에서 상대적으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따라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초래하는지에 주목하고 있다(임수영,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 진학 시 대학 및 학과 선택 과정에서 나타나는 타협 현상에 대해 Gottfredson(1981)의 진로의사결정 타협 이론을 적용하여 설명함으로써 개인이 대학 진학 시점에 대학과 학과 중 어떤 요소를 우선시 하여 결정했는지에 따라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특히 대학 진학 시점의 진로타협이 대학생활

적응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 있다고 가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초기의 타협 내용에 따라 대학 생활을 시작하고 대학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대학 생활에서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Gottfredson(1981)의 타협이론을 바탕으로 대학과 학과에 대한 선호도를 각각 사회적 지위와 흥미를 대표하는 요인으로 선정하였으며, 대학 진학 시 진로타협과정에서 사회적 지위와 흥미 중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진학 결정을 내렸는지에 따라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다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다시 말해 만약 개인이 대학 선호도를 더 우선시 하여 진학을 결정할 경우 대학의 사회적 명성과 지위를 상대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고 볼 수 있으며, 학과 선호도를 더 우선시 하여 진학을 결정할 경우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여 선택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 개인이 대학과 학과 모두 선호하는 곳으로 진학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회적 지위와 흥미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개인이 우선시하는 가치에 따라 학교나 학과 둘 중의 하나를 포기하거나 때로는 둘 모두를 포기해야 하는 타협과정을 통해 선택을 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대학생활적응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몇몇 국내 선행 연구들에서도 대학 및 학과 선택 요인이 학과만족도나 진로발달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었다. 김원형(2002)과 전은경, 장은영과 이규혜(2001)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자신이 다니길 희망했던 대학에 들어온 경우 학교와 해당 전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대학에서의 학업을 충실히 수행하

게 되어 학업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선화(2012)의 연구에서는 자신의 전공이 적성 및 흥미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가 대학생활 동안 전공 만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황매향(2002)의 연구에서는 Gottfredson(1981)의 타협이론을 토대로 입학 과정에서의 타협 양상에 따라 타협 유형을 무타협, 대학명성추구, 학과인기도 추구, 적성추구, 적성타협, 학과인기도타협, 대학명성타협, 전체 타협의 여덟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에 따라 학과만족도, 진로준비행동, 진로변경의사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적성을 포기하고 학교 명성을 선택할 경우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보고하였으나 진로준비행동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변경의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적성을 중요하게 생각한 집단은 진로변경의사가 낮고, 진로준비행동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다른 연구들에 의해서도 진로의사결정에서의 흥미 타협은 심리적인 부적응 및 낮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김화영, 2003),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과 부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강재연, 2009).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는 대학 진학 시점의 타협과정이 진로행동 및 진로발달수준 등 진로 영역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집중하였으며, 대학생활적응의 다양한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또한 대학 진학 시점의 진로 타협 과정에서 개인의 능력과 조건, 가치관 등은 대학과 학과 선택에 동시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대학 선호도의 영향과 학과 선호도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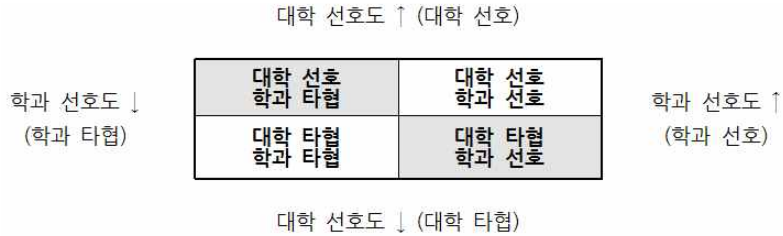


그림 1. 대학입학시점에서 대학 및 학과 선호도 타협에 따른 대학 및 학과 선호도 조합

을 각기 따로 검증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 진학 시점의 대학 및 학과 선택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9개의 문항으로 좀 더 다양한 영역의 대학생활적응 수준을 평가하였으며 여기에 학점을 추가하여 전통적 의미의 학업 성취도를 적응수준 요인으로 함께 포함하였다. 또한 대학 및 학과 선호도와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각각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의 조합패턴에 따른 타협 유형별로 대학생활적응 수준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대학 및 학과 선택의 타협 유형은 그림 1에서와 같이 4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대학 및 학과 선택에 있어 1순위로 선호하는 곳으로 진학한 경우 ‘대학 선호’, ‘학과 선호’라고 명명하였으며, 3순위 이하로 선호하는 곳으로 진학한 경우는 외적인 조건에 따라 개인 내적 욕구를 포기하는 타협 과정을 거쳤다고 보고 ‘대학 타협’, ‘학과 타협’으로 명명하였다. 나아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은 서울의 상위권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2학년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대상이 폭이 제한적이었거나, 기억에 의존하여 대학 입학 시점의 의사결정 과정을 회상하였다는 한계가 있다(임수영, 2014; 황매향,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4년제 대학교 1학년 학

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패널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 본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대학 진학 시 대학 및 학과 선택에 있어 어떤 타협 경향을 보이는지 실제적인 현상을 확인해보고, 대학 진학 시 대학 및 학과 선호도 타협 유형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국내 선행연구 결과들에 기초하여 볼 때, 대학과 학과 모두 선호하는 곳으로 진학하여 사회적 지위와 흥미를 모두 충족시키는 선택을 하는 개인은 대학생활적응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가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현실적인 타협 과정을 통해 대학 또는 학과 둘 중에 하나 또는 둘 모두를 포기하는 타협을 하게 된다면 이는 대학생활적응에 있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학교 명성을 추구하는 경우와 흥미 타협을 하는 경우 심리적 부적응 및 진로 영역에서 적응 수준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학과를 포기하고 선호하는 대학을 우선시하여 진학한 경우는 선호하는 대학보다 학과를 우선시하여 진학한 개인 보다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생

들이 진학 시점에서 행하는 실제적인 진로타협 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타협 결과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수준의 차이를 확인해봄으로써 진학 및 진로 지도와 대학교육에 있어 현실적인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진학 시 대학 및 학과 선호도가 높은 곳으로 진학한 경우 대학생 생활적응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날 것이다. 둘째, 대학 및 학과 선택에 있어 선호도의 조합을 바탕으로 한 4가지 타협 유형에 따라 대학생 생활적응 수준에 있어 차이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학 선호-학과 선호', '대학 타협-학과 선호', '대학 선호-학과 타협', '대학 타협-학과 타협' 순으로 대학생 생활적응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날 것이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의 자료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승인을 받아 한국교육중단연구 7차년도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한국교육중단연구는 2005년도에 전국 150개 중학교 1학년 학생 6,908명을 대상으로 1차년도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활용된 7차년도 자료는 2011년에 수집된 자료로 조사 대상의 대부분인 약 80%가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해이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전체 자료 중 국내 4년제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2147명(남학생 1040명, 여학생 1107명)의 조사 결과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참가자들이 재학 중인

대학의 특성 별 분포는 수도권 대학 및 비수도권 대학의 비율은 각각 31.2%, 68.8%로 나타났다으며, 국공립 대학 및 사립대학의 비율은 24.9%, 75.1%로 나타났다. 학과별 분포는 인문계열 13.4%, 사회계열 28.9%, 자연계열 13.6%, 공학계열 24.0%, 교육계열 5.0%, 예체능계열 9.5%, 의약계열 5.2%로 나타났다.

### 측정도구

#### 대학선호도

대학선호도는 학생들이 자신의 대학 입학 당시의 성적을 고려했을 때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의 입학 희망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응답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설문지의 질문은 “성적을 고려할 때, 현재 재학 중인 대학은 어느 정도 희망했던 대학입니까?”로 되어 있고, 학생들은 1순위, 2순위, 3순위 이하 중 하나를 선택하였다.

#### 학과선호도

학과선호도는 학생들이 자신의 대학 입학 당시의 성적을 고려했을 때 현재 다니고 있는 학과의 입학 희망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응답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설문지의 질문은 “성적을 고려할 때, 현재 재학 중인 학과는 어느 정도 희망했던 대학입니까?”로 되어 있고, 학생들은 1순위, 2순위, 3순위 이하 중 하나를 선택하였다.

####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대학교 1학년 1학기 동안의 생활에 대해 9가지 항목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대학생활적응 문항은 미국 고등교육연구소(HERI)에서

실시되는 CIRP(Cooperative Institutional Research Program)의 조사와 비교 가능한 요인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팀은 CIRP를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우리나라 대학생 실정에 맞도록 문항 수와 문항 내용을 수정하였다(김양분 외, 2011).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중단연구 7차년도 설문지에 포함된 대학생활적응 9문항을 모두 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의 질문은 “*귀하는 다음 사항이 지난 1학기 동안의 자신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까?*”로 되어있었으며, 이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각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재학 이유와 얻고자 하는 바 인지 2) 학업에서 교수님의 요구와 기대 이해 3) 수업과 과제가 어렵게 느껴짐 4) 해야 할 만큼 공부를 열심히 못함 5) 학업과 여러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쉬움 6) 시간 효율적으로 사용 7) 대학교육 가치 회의 8) 대학에서 배우는 것 흥미 있고 유익 9) 공부, 취미활동 함께 하는 친구 대학 내 있음.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의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 )는 .688이었다.

### 학점

대학생들의 학업성취를 평가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응답한 학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소속 학교에 따라 학점의 만점 기준이 4.5, 4.3, 4.0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학점 측정 문항은 우선 본인의 학점 만점 기준을 선택하고, “*귀하의 지난 1학기 평균 평점은 어떻습니까?*”의 질문에 대해 실제 자신의 학점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 분석방법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Windows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현 대학과 학과 선호도의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연구목적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 및 학과의 선호도 각각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수준에 대한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학 및 학과 선호도 타협 유형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수준에 대한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각 분산분석에 대한 사후검증으로는 Scheffé 방법을 활용하였다.

## 결 과

### 대학 및 학과 선호도 유형의 빈도

대학 및 학과 선호도 유형의 빈도는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대학 선호도의 경우, 1순위 선호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565명(28.1%), 2순위 선호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858명(42.1%), 3순위 이하의 선호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601명(29.8%)으로, 2순위 선호 대학에 진학한 학생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과 선호도의 경우, 1순위 선호 학과에 진학한 학생이 1178명(58.5%), 2순위 선호 학과에 진학한 학생이 623명(30.9%), 3순위 이하의 선호 학과에 진학한 학생이 213명(10.6%)으로, 1순위 선호 학과에 진학한 학생의 빈도가 가

표 1. 대학 및 학과 선호도 유형의 빈도

		학과 선호도			전체
		1순위	2순위	3순위 이하	
대학 선호도	1순위	435 (21.6%)	100 (5.0%)	30 (1.5%)	565 (28.1%)
	2순위	478 (23.7%)	309 (15.3%)	61 (3.0%)	848 (42.1%)
	3순위 이하	265 (13.2%)	214 (10.6%)	122 (6.1%)	601 (29.8%)
	전체	1178 (58.5%)	623 (30.9%)	213 (10.6%)	2014 (100.0%)

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 및 학과 선호도 타협 유형은 '1순위 대학-1순위 학과'로 진학한 학생이 435명(21.6%), '1순위 대학 -3순위 이하 학과'로 진학한 학생이 30명(1.5%), '3순위 이하 대학-1순위 학과'로 진학한 학생이 254명(13.2%), '3순위 이하 대학-3순위 이하 학과'로 진학한 학생이 122명(6.1%)로 나타났으며, 이 4가지 유형 중에는 대학 및 학과 모두 1순위로 선호하는 곳으로 진학한 학생의 빈도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빈도의 차이를 교차분석해본 결과 카이제곱값은 177.276,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유의성이  $p < .01$  으로 나타나 모든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학 및 학과 선호도와 대학생활적응 및 학점 간의 상관

가설 검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인 대학 및 학과 선호도와 대학생활적응, 학점 간의 전체 상관을 Pearson 상관계수를 통해 산출하였고 결과는 표 2와 같다. 상관표 해석의 용이함을 위해 대학 및 학과 선호도는 점

수가 클수록 선호도가 높음을 의미하도록 재코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1, 2, 3순위로 응답된 선호도 점수를 3, 2, 1의 역순으로 재코딩하여 상관분석 표에서는 점수가 클수록 높은 선호도를 뜻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 선호도가 높은 대학 및 학과의 입학은 대학생활적응의 긍정적인 하위 영역들과는 정적상관, 부정적인 하위 영역들과는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활적응의 긍정적인 하위 영역들과 학점은 정적상관, 부정적인 하위 영역들과 학점은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생활적응의 일부 하위 영역들에서는 예상되는 결과와 반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높은 대학 선호도는 대학생활적응 하위 영역 중 '수업과 과제가 어렵게 느껴짐'과 정적 상관이 확인되었으며, 학점과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대학 및 학과 선호도와 대학생활적응 및 학점 간의 관계

대학 및 학과 선호도와 대학생활적응 및 학



표 2. 대학 및 학과 선호도와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												
2	.27**	-											
3	.04**	.15**	-										
4	.10**	.18**	.65**	-									
5	.02	.15**	.66**	.54**	-								
6	.13**	.02	-.36**	.01	-.11**	-							
7	.03	-.02	-.51**	-.16**	-.26**	.28**	-						
8	-.02	.02	.52**	.23**	.21**	-.12**	-.08**	-					
9	.03	.09**	.62**	.34**	.36**	-.12**	-.40**	.30**	-				
10	-.10**	-.09**	-.46**	-.25**	-.17**	.07**	.17**	-.09**	-.08**	-			
11	.09**	.11**	.61**	.46**	.38**	.00	-.12**	.22**	.28**	-.25**	-		
12	.05**	.08**	.48**	.23**	.22**	-.03	.01	.24**	.17**	.10**	.32**	-	
13	-.11**	.05*	.28**	.14**	.28**	-.17**	-.29**	.07**	.20**	-.06**	.11**	.05*	-
M	2.04	1.52	3.04	3.06	3.19	3.04	3.60	3.10	2.61	2.93	3.22	3.70	72.95
SD	.76	.68	.46	.85	.79	.88	.88	.89	.83	.92	.83	.89	13.55

1. 대학선호도 2. 학과선호도 3. 대학생활적응총점 4. 재학의 이유와 연고자 하는 바 인지 5. 학업에서 교수님의 요구와 기대 이해 6. 수업과 과제가 어렵게 느껴짐 7. 해야 할 만큼 공부를 열심히 못함 8. 학업과 여러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쉬움 9.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 10. 대학교육 가치에 회의 11. 대학에서 배우는 것은 흥미 있고 유익한 것 같음 12. 공부, 취미활동 함께 하는 친구가 대학 내에 있음 13. 학점

\*  $p < .05$ , \*\*  $p < .01$

점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먼저 대학 및 학과 선호도와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전체 분석모형에 대한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대학 선호도에 따라 다변량 분석의 전체 분석모형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유의도 .01 수준에서 의미가 있었다, Wilks'  $\lambda = .96$ ,  $F(2, 2144) = 5.15$ ,  $\eta^2 = .02$ ,  $p < .01$ . 그리고 학과 선호도에 따라 다변량 분석의 전체 분석모형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유의도 .01 수준에서 의미가 있었다, Wilks'  $\lambda = .96$ ,  $F(2, 2011) = 5.13$ ,  $\eta^2 = .02$ ,  $p$

$< .01$ .

대학 선호도에 따라 대학생활적응의 하위 영역들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대학 진학 시 대학 선호도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총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2, 2144) = 2.33$ ,  $p > .05$ . 반면 대학생활적응의 하위 영역 중 '수업과 과제가 어렵게 느껴짐'에서는 선호도가 높은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어려움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2, 2144) = 19.88$ ,  $p < .01$ . 이러한 경향성은 학점에서도 확인되었는데, 선호도가 높은 대학에 진학

표 3. 대학 선호도와 대학생활적응 및 학점 간의 관계

	대학 선호도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대학생활적응 총점	1순위	3.05	.48	2.33	
	2순위	3.05	.43		
	3순위 이하	3.00	.48		
재학의 이유와 얻고자 하는 바 인지	1순위	3.16	.84	10.13**	1, 2 > 3**
	2순위	3.08	.82		
	3순위 이하	2.95	.88		
학업에서 교수님의 요구와 기대 이해	1순위	3.20	.79	.98	
	2순위	3.21	.76		
	3순위 이하	3.16	.81		
수업과 과제가 어렵게 느껴짐	1순위	3.48	.86	19.88**	1, 2 > 3**
	2순위	3.07	.86		
	3순위 이하	2.88	.90		
해야할 만큼 공부를 열심히 못함	1순위	3.63	.88	.90	
	2순위	3.60	.86		
	3순위 이하	3.57	.92		
학업과 여러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쉬움	1순위	3.10	.91	.43	
	2순위	3.10	.86		
	3순위 이하	3.13	.91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	1순위	2.63	.85	.96	
	2순위	2.61	.80		
	3순위 이하	2.57	.85		
대학교육 가치에 회의	1순위	2.82	.96	10.82**	3 > 1, 2**
	2순위	2.91	.88		
	3순위 이하	3.05	.92		
대학에서 배우는 것은 흥미있고 유익한 것 같음	1순위	3.30	.83	9.42**	1, 2 > 3**
	2순위	3.26	.81		
	3순위 이하	3.11	.84		
공부, 취미활동 함께 하는 친구가 대학 내에 있음	1순위	3.74	.88	4.43*	2 > 3*
	2순위	3.74	.85		
	3순위 이하	3.62	.93		
학점	1순위	71.19	13.92	12.78**	3 > 1, 2**
	2순위	72.59	13.38		
	3순위 이하	74.99	13.19		

\*  $p < .05$ , \*\*  $p < .01$

1순위( $n=586$ ), 2순위( $n=899$ ), 3순위 이하( $n=662$ )

표 4. 학과 선호도와 대학생활적응 및 학점 간의 관계

	학과 선호도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대학생활적응 총점	1순위	3.09	.46	23.39**	1>2>3**
	2순위	3.02	.42		
	3순위 이하	2.87	.42		
재학의 이유와 연고자 하는 바 인지	1순위	3.20	.83	22.75**	1>2>3**
	2순위	3.01	.80		
	3순위 이하	2.72	.79		
학업에서 교수님의 요구와 기대 이해	1순위	3.29	.76	13.69**	1>2>3**
	2순위	3.16	.75		
	3순위 이하	2.91	.81		
수업과 과제가 어렵게 느껴짐	1순위	3.06	.87	.41	
	2순위	3.02	.87		
	3순위 이하	3.00	.92		
해야 할 만큼 공부를 열심히 못함	1순위	3.58	.89	.83	
	2순위	3.59	.89		
	3순위 이하	3.68	.83		
학업과 여러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쉬움	1순위	3.12	.90	.45	
	2순위	3.12	.88		
	3순위 이하	3.05	.82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	1순위	2.66	.845	5.30**	1 > 3** 2 > 3*
	2순위	2.59	.77		
	3순위 이하	2.42	.80		
대학교육 가치에 회의	1순위	2.86	.93	7.14**	3 > 1**
	2순위	2.96	.87		
	3순위 이하	3.12	.89		
대학에서 배우는 것은 흥미있고 유익한 것 같음	1순위	3.31	.86	7.99**	1 > 2, 3**
	2순위	3.17	.78		
	3순위 이하	3.06	.84		
공부, 취미활동 함께 하는 친구가 대학 내에 있음	1순위	3.76	.87	5.57**	1, 2 > 3*
	2순위	3.69	.87		
	3순위 이하	3.52	.92		
학점	1순위	73.56	13.61	2.30	
	2순위	72.82	13.29		
	3순위 이하	71.15	13.21		

\*  $p < .05$ , \*\*  $p < .01$

1순위( $n=1178$ ), 2순위( $n=623$ ), 3순위 이하( $n=213$ )

한 학생들이 3순위 이하의 선호도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과 비교하여 학점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F(2, 2144) = 12.78, p < .01$ .

학과 선호도에 따라 대학생활적응의 하위 영역들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대학 진학 시 가장 선호하는 학과에 진학한 학생들일수록 대학생활적응 총점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F(2, 2011) = 23.39, p < .01$ . 대학생활적응 하위 영역에서는 대부분의 하위 영역에서 선호하는 학과에 진학한 학생이 그렇지 못한 학생들보다 적응 수준에서 높은 점수가 나타났으며,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재학의 이유와 연고자 하는 바 인지,  $F(2, 2011) = 22.75, p < .01$ , 학업에서 교수님의 요구와 기대 이해,  $F(2, 2011) = 13.69, p < .01$ ,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  $F(2, 2011) = 5.30, p < .01$ , 대학교육 가치에 회의,  $F(2, 2011) = 7.14, p < .01$ , 대학에서 배우는 것은 흥미 있고 유익한 것 같음,  $F(2, 2011) = 7.99, p < .01$ , 공부, 취미활동을 함께 하는 친구가 대학 내에 있음,  $F(2, 2011) = 5.574, p < .01$ , 으로 나타났다.

#### 대학 및 학과 선호도 타협 유형과 대학생활적응 및 학점 간의 관계

대학 및 학과 선호도 타협 유형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학 및 학과 선호도의 4가지 타협 유형을 독립변인으로, 대학생활적응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대학 및 학과 선호도의 4가지 타협 유형은 '1순위 대학-1순위 학과' 진학 유형을 '대학 선호-학과 선호' 유형으로, '3순위 이하 대학-1순위 학과' 진학 유형을 '대학 타협-학과 선호' 유형으로,

'1순위 대학-3순위 이하 학과' 진학 유형을 '대학 선호-학과 타협' 유형으로, '3순위 이하 대학-3순위 이하 학과' 진학 유형을 '대학 타협-학과 타협'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우선 다변량 분산분석의 기본가정이 충족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종속변수들의 정규성과 각 집단별 종속변수 공분산들의 동질성을 확인하였다. 종속변수의 정규분포는 변인들의 첨도와 왜도값을 점검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측정된 종속변수들의 왜도와 첨도 절대값이 모두 2 이하로 나타나 정규분포를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분산 행렬에 대한 Box의 동일성 검정을 통해 집단별 종속변수의 공분산 행렬이 동일하다는 가정이 충족됨을 확인하였다( $F = 1.144, p = .122$ ). 다변량 분석의 전체 분석모형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유의도 .01 수준에서 의미가 있었다, Wilks'  $\lambda = .89, F(3, 848) = 3.65, \eta^2 = .04, p < .01$ . 대학 및 학과 선호도 타협 유형에 따라 대학생활적응 하위 영역들에서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한 변량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활적응 총점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3, 848) = 9.00, p < .01$ . 각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사후검정으로 집단 간 사례수가 다를 때도 적용 가능하며 가장 보수적인 차이검증 방법으로 적용되는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사후검증(Scheffé) 결과 '대학 선호-학과 선호', '대학 타협-학과 선호' 집단과 '대학 타협-학과 타협'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p < .05$ ). 대학생활적응 하위 영역별에서는 재학의 이유와 연고자 하는 바 인지  $F(3, 178) = 16.36, p < .01$ , 학업에서 교수님의 요구와 기대 이해,  $F(3, 178) = 9.99, p < .01$ , 수업과 과제가 어렵게 느껴짐,  $F(3,$

표 5. 대학 및 학과 선호도 타협 유형과 대학생활적응 및 학점 간의 관계

	대학-학과 선호도 타협 유형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대학생활적응 총점	1. 대학선호-학과선호	3.10	.47	9.00**	1.2 > 4**
	2. 대학타협- <b>학과선호</b>	3.09	.50		
	3. <b>대학선호</b> -학과타협	2.87	.37		
	4. 대학타협-학과타협	2.88	.42		
제학의 이유와 얻고자 하는 바 인지	1. 대학선호-학과선호	3.24	.82	16.36**	1 > 3 <sup>*</sup> 1 > 4** 2 > 4**
	2. 대학타협- <b>학과선호</b>	3.13	.87		
	3. <b>대학선호</b> -학과타협	2.73	.83		
	4. 대학타협-학과타협	2.69	.77		
학업에서 교수님의 요구와 기대 이해	1. 대학선호-학과선호	3.28	.75	9.99**	1 > 3, 4** 2 > 3, 4**
	2. 대학타협- <b>학과선호</b>	3.28	.78		
	3. <b>대학선호</b> -학과타협	2.67	.76		
	4. 대학타협-학과타협	2.99	.81		
수업과 과제가 어렵게 느껴짐	1. 대학선호-학과선호	3.15	.84	6.29**	1 > 2** 1 > 4 <sup>*</sup>
	2. 대학타협- <b>학과선호</b>	2.89	.93		
	3. <b>대학선호</b> -학과타협	3.07	.87		
	4. 대학타협-학과타협	2.87	.90		
해야할 만큼 공부를 열심히 못함	1. 대학선호-학과선호	3.61	.87	.72	
	2. 대학타협- <b>학과선호</b>	3.52	.98		
	3. <b>대학선호</b> -학과타협	3.67	.84		
	4. 대학타협-학과타협	3.61	.82		
학업과 여러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쉬움	1. 대학선호-학과선호	3.14	.91	1.02	
	2. 대학타협- <b>학과선호</b>	3.18	.86		
	3. <b>대학선호</b> -학과타협	3.07	.79		
	4. 대학타협-학과타협	3.02	.85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	1. 대학선호-학과선호	2.66	.86	2.83 <sup>*</sup>	
	2. 대학타협- <b>학과선호</b>	2.62	.88		
	3. <b>대학선호</b> -학과타협	2.43	.68		
	4. 대학타협-학과타협	2.42	.85		
대학교육 가치에 회의	1. 대학선호-학과선호	2.78	.97	6.73**	4 > 1** 4 > 2 <sup>*</sup>
	2. 대학타협- <b>학과선호</b>	2.91	.92		
	3. <b>대학선호</b> -학과타협	2.97	.62		
	4. 대학타협-학과타협	3.20	.87		
대학에서 배우는 것은 흥미 있고 유익한 것 같음	1. 대학선호-학과선호	3.35	.84	6.50**	1 > 4** 2 > 4 <sup>*</sup>
	2. 대학타협- <b>학과선호</b>	3.24	.86		
	3. <b>대학선호</b> -학과타협	3.23	.90		
	4. 대학타협-학과타협	2.98	.79		
공부, 취미활동 함께 하는 친구가 대학 내에 있음	1. 대학선호-학과선호	3.77	.84	3.70 <sup>*</sup>	
	2. 대학타협- <b>학과선호</b>	3.71	.91		
	3. <b>대학선호</b> -학과타협	3.40	1.04		
	4. 대학타협-학과타협	3.53	.88		
학점	1. 대학선호-학과선호	72.27	13.85	9.24**	2 > 1, 3** 1, 4 > 3 <sup>*</sup>
	2. 대학타협- <b>학과선호</b>	76.20	12.91		
	3. <b>대학선호</b> -학과타협	64.32	14.08		
	4. 대학타협-학과타협	73.45	12.83		

\*  $p < .05$ , \*\*  $p < .01$

대학선호-학과선호( $n=435$ ), 대학타협-학과선호( $n=265$ ), 대학선호-학과타협( $n=30$ ), 대학타협-학과타협( $n=122$ )

178) = 6.29,  $p < .01$ , 대학교육 가치에 회의,  $F(3, 178) = 6.73, p < .01$ , 대학에서 배우는 것은 흥미 있고 유익한 것 같음,  $F(3, 178) = 6.50, p < .01$ , 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대학 선호-학과 타협' 집단이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학점을 나타냈다. 사후검증(Scheffé) 결과, '대학 타협-학과 선호' 집단이 '대학 선호-학과 선호', '대학 선호-학과 타협' 보다 학점이 높게 나타났고( $p < .01$ ), '대학 선호-학과 선호', '대학 타협-학과 타협' 집단이 '대학 선호-학과 타협' 집단보다 학점이 높게 나타났다( $p < .01$ ).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 논 의

새로운 도전과 변화의 환경인 대학생들은 개개인의 적응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대학생활적응은 청소년기의 의존성에서 벗어나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과도기에 겪는 대표적인 발달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이경아, 신혜린, 유나현, 이기학, 2008). 이러한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개인을 둘러싼 복합적인 대학 환경과 학생 개인의 심리적 특성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학력과 학벌이 중시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대학 진학 시점의 대학 및 학과 선택이 대학 진학 후 신입생들의 대학생활적응에 매우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ottfredson (1981)의 진로사결정 타협이론을 토대로 대학 진학 시 대학 및 학과 선호도에 따른 선택을 사회적 지위와 흥미 간의 타협과정으로 이해하고, 진로타협과정에서 어떠한 가치를 중

요하게 생각하고 선택했느냐에 따라 대학생활 적응수준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그 차이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우선 대학 진학 시 대학 및 학과 선호도 유형의 빈도를 살펴본 결과, 1순위로 선호하는 대학에 진학한 비율(28.1%)은 그렇지 않은 비율(71.9%)에 비해 다소 낮았지만, 학과의 경우는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1순위로 선호하는 학과(58.5%)에 진학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선호하는 학과를 포기하고 선호하는 대학을 선택한 '1순위 대학-3순위 이하 학과'에 진학한 집단의 비율(1.5%)보다, 선호하는 대학을 포기하고 선호하는 학과를 선택한 '3순위 이하 대학-1순위 학과'에 진학한 집단의 비율(13.2%)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만연한 학벌주의로 인해 대학이나 학과 선택에 있어 본인의 적성이나 흥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보다는 성적을 앞세워 대학의 간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기존의 우려와는 다소 반대되는 결과이다. 물론 적성 및 흥미를 충분히 고려하고 성적 또한 선호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조건을 만족하여 가장 선호하는 대학 및 학과에 진학하는 것이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현실적으로 대학 및 학과 선택에 있어 진로타협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에는 대학 선호도 보다는 학과 선호도를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여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학 선호도와 대학생활적응 수준간의 관계는 선호하는 대학 진학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총점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대학생활적응 하위 영역과 학점을 살펴보았을 때에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선호하는 대학에 진학한 학생일수록 대

학생생활적응의 하위 영역 중 '수업과 과제가 어렵게 느껴짐'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학점은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이 자신이 다니길 희망했던 대학에 들어온 경우 학교와 해당 전공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면서 대학에서의 학업생활도 충실히 수행하게 되어 학업성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들의 결과(김원형, 2002; 전은경 외, 2001)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를 대학 진학의 현실에 비추어 추측해 보자면,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일수록 성적에 따른 입학 경쟁이 더욱 치열한 상위권 대학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대학의 구성원들은 학업적 경쟁력이 뛰어난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해볼 수 있다. 나아가 상위권 대학들은 이러한 학생 구성원의 수준을 고려하여 수업 및 과제의 난이도를 높게 구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배경들이 1순위로 선호하는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학업적 어려움을 높게 지각하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3순위 이하로 선호하는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자신의 학업 성적을 기준으로 하향 지원한 대학에 입학했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구성원 간의 학업 경쟁에 있어 상대적으로 수월함을 느끼고 우수한 학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학과 선호도와 대학생활적응 수준간의 관계는 선호하는 학과에 진학한 학생일수록 대학생활적응과 학점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이 전공학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학습에 대한 흥미상실로 인한 성적불량, 학교에서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소외감 유발, 대학생활에 대한 부적응으로 인한 불안과 신경증 등 심리

적 문제 유발, 대학의 면학 분위기 저해, 개인의 잠재적 가능성 개발기회 박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 장문영(200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즉, 진학 시점에 자신의 전공에 대한 선호도가 얼마나 높은지가 대학생활 동안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적응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및 학과 선택에 있어 선호도의 조합을 바탕으로 타협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하였다. Gottfredson(1981)은 사람들이 진로의사결정을 할 때 타협과정을 거치는데, 그 핵심을 사회적 지위, 흥미, 성역할로 정의하고 이상과 현실을 타협할 때 이 세 가지 측면을 핵심적으로 고려하게 된다고 하였다. 대학 및 학과 선호도에 따른 진학 선택은 진로 타협의 3가지 핵심 요인인 중 사회적 지위와 흥미 중 어느 것에 대한 선호를 더 중요시 여기며 타협하였는지를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1순위로 선호하는 대학 및 학과에 진학하는 것을 '선호', 3순위 이하로 선호하는 대학 및 학과에 진학하는 것을 '타협'이라 명명하고, 선호도 타협 유형을 '대학 선호-학과 선호', '대학 타협-학과 선호', '대학 선호-학과 타협', '대학 타협-학과 타협'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대학 및 학과 선호도 타협 유형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총점에서의 차이를 확인해본 결과, '대학 선호-학과 선호', '대학 타협-학과 선호' 집단이 '대학 타협-학과 타협' 집단과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그러나 '대학 선호-학과 선호'와 '대학 타협-학과 선호'의 집단 간 적응수준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선호하지 않는 대학에 입학한 경우에는 학과를 선호할수록 적응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아지지만, 선호하는 학과에 진학한 경우에는 적응 수준에 있

어 대학의 선호 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호하는 대학 및 학과에 진학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약 타협을 해야 한다면 학과보다 대학 선택에 대한 타협이 추후 대학생활적응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려준다.

흥미로운 결과는 대학생활적응의 하위 영역 중 '수업과 과제가 어렵게 느껴짐'과 '학점'의 차이에서 나타났다. 우선 '대학 선호-학과 선호' 집단이 '대학 타협-학과 선호'와 '대학 타협-학과 타협' 집단과 비교하여 수업과 과제에 있어 유의미하게 높은 어려움을 지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 선호도에 따른 차이 검증에서의 결과와 일치한다. 즉, 대학 선택에 있어서 타협을 한 학생들은 대학 교육의 수준을 자신의 학업적 경쟁력에 비추어 어렵게 지각하지 않고 있지만, 선호하는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의 경우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 수준에 대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학점에 있어서 집단 간 차이와 함께 살펴보면, 실제적인 학점은 '대학 타협-학과 선호', '대학 선호-학과 선호', '대학 선호-학과 타협'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대학을 타협하고 학과를 선호하는 경우 학업 성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지만, 선호하는 대학에 진학하였을 경우에는 학과를 함께 선호하는지 여부에 따라 학업 성적에 있어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진학한 대학은 만족스럽지만 재학하고 있는 학과는 선호하지 않을 때에 학업 성적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결과는 대학 진학에 있어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선호하는 학과로 진학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과 학과에 있어서 모두 타협을 한 '대학 타협-학과 타협' 집단의 경우 대학교육

의 가치에 가장 큰 회의를 느끼며 전반적인 대학생활적응 영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 진학 시 대학 및 학과에 대한 선호도와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개인의 대학 진학 시 타협과정과 대학의 신입생 관리에 있어 구체적인 개입 방안에 대해 제언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학생 개인은 대학 진학 시 학교와 학과 모두를 중요하게 고려해야겠지만, 본인의 적성과 흥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호하는 학과로의 진학을 결정하는 것이 입학 후 대학생활적응에 있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학과 선호에 대한 고려를 배제하고 성적을 앞세워 대학의 명성만을 쫓아 대학 진학을 결정할 시에는 입학 후 학업적인 영역에 있어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학업적 경쟁력에 부합하는 수준의 대학을 선택하고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일치하는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대학생활적응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학은 신입생 선발 단계에서부터 내신과 수능 성적만을 고려한 점수 위주의 선발 방식 보다는 지원자의 전공적합성을 중요한 평가요소로 활용함으로써 전공적합성이 높은 학생 선발을 통해 신입생들의 적응을 긍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학 선호-학과 타협' 신입생 집단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학업적 부적응을 예방하기 위해 신입생들의 학업 능력에 대한 적절한 사전 조사와 더불어 이들이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 수준에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단계별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입생 대상으로 대학 지원 시 대학 및 학과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대학생활에서 부적응을 나타낼



수 있는 '대학 타협-학과 타협' 신입생 집단을 사전에 확인하고, 지도 교수 면담 등을 통해 좀 더 주의 깊은 관심을 제공함으로써 대학생 생활 적응에 필요한 학사 정보 제공 및 다양한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대학 생활에 좀 더 의미를 찾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신입생들의 학업 능력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통해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 수준에 비적응적일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들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지원 시 선호하는 대학과 학과에 대해서 Gottfredson(1981)이 진로의사결정 타협이론에서 핵심적 요소로 제시한 사회적 지위와 흥미를 토대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측정도구를 활용함에 있어서 대학 및 학과의 선호도는 측정하였지만 대학 및 학과 선호의 이유가 사회적 지위와 흥미 때문인지는 정확히 함께 확인하지 못하였다. 특히 학과를 선택할 때에는 자신의 적성과 흥미도 중요하게 고려하지만, 청년 취업난이 극심한 요즘 시대에는 졸업 후 안정적인 사회 진출 등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이다. 기존 연구에서도 학과가 취업에 대한 전망이 흐리고 학교 교육을 통해 기대되는 장래의 경제적 보상이 회의적일 때 학생들이 학교, 학과에 대한 애교심, 자신감이 감소되고 이는 적응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허철수, 1989)이 확인되었다. 즉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학과 선호와 만족의 이유는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 및 학과 선호도와 더불어 선호 이유를 함께 탐색함으로써 대학

및 학과에 대한 기대와 적응수준 간의 관계도 파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대학 및 학과 선호도가 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지만, 이들의 영향력이 대학 생활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되지는 않았다. 특히 대학 선호에 따라 나타나는 학업적 영역에 있어서의 부적응이 신입생 시절 초기 적응수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지속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은 중요할 것이다. 자신이 다니길 희망했던 대학에 들어온 경우 학교뿐만 아니라 전공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여 학업적 성취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기존 연구(김원형, 2002; 전은경 외, 2001)와 같이, 선호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신입생 시절 일시적인 학업적 어려움을 동반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학생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보기 위해 추후 종단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 진학 시 대학 및 학과 선호도가 대학생활적응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넘어서 대학 진학 후 경험하는 다양한 대학생활 경험과 개인의 심리적 특성 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함께 검증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있어 입학 전 영향 요인뿐만 아니라 입학 후 영향 요인을 함께 확인함으로써 대학생활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인 상담 및 지도와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 및 환경 등 개입 영역에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인원, 전성일 (2003). 학벌주의가 학부모들의 인식수준과 사교육의도에 미치는 영향. *소비학연구*, 14(1), 141-157.
- 강재연 (2009). 한국 대학생의 진로타협과 진로 관련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 진로태도성숙,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개인주의-집합주의 성향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교육부 (2013). 교육 통계. 교육청 웹사이트: <http://www.moe.go.kr/>
- 김영린, 이기학 (2012). 심리적 독립성, 의존부정성향, 자기성장주도성에 따른 하위집단별 대학생활적응과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차이. *상담학연구*, 13(5), 2251-2270.
- 김원형 (2002). 모교 동일시에 대한 탐색적 비교 문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5(2), 25-45.
- 김화영 (2003). 대학생 진로결정의 흥미타협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원 (2005). 가족체계유형 및 진로결정과 재학생생활적응과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아란, 하 정 (2013). 대학생의 진로선택유형에 따른 진로정체감, 진로미결정 및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28, 27-43.
- 박진영 (2012). 지역대학 성인대학생의 대학생 생활적응에 대한 사회적지원, 학업탄력성, 자아존중감의 영향력 분석. *한국지방자치연구*, 14(3), 47-75.
- 신지영 (2000). 부모와의 갈등적 독립 및 가족응집력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현정 (2003).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적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호영, 김승보, 정재호 (2006). *대학서열화와 기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우선화 (2012). *진로결정상태유형에 따른 전공만족도와 진로성숙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찬우 (2011). *성격강점이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및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논문집*, 365-365.
- 유혜은 (2010). *학벌사회와 대학입시 정책간의 관계분석과 대안탐색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아, 신혜린, 유나현, 이기학 (2008). *간편 대학생활 적응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9(2), 739-754.
- 이학수 (2010). *대학생 성인애착유형 간 관계만족도와 심리적 특성의 차이: 불안, 내외통제성향, 자존감 및 심리적 안녕감*.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수영 (2014). *서울지역 상위권 대학 학생들의 대학입학 타협유형과 적응도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광원 (2011). *진로의사결정 타협유형에 따른 전공만족도, 진로성숙도, 대학생활적응도의 차이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문영 (2005). *대학생의 학과 만족도 귀인성향 및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은경, 장은영, 이규혜 (2001). *의류학 관련 전공에 대한 학생들의 전공 만족요인 구*

- 조적 모형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25(9), 1614-1620.
- 조화진 (2005). 부모와의 애착 및 분리-개별화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영민 (2010). 대학생의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과 우울의 관계에서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의 매개 효과.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철수 (1989). 대학 및 학과선택 결정과정과 학업적응과의 관계. *학생생활연구*, 11, 129-150. 제주대 학생생활연구소.
- 황매향 (2002). 진로의사결정에서 나타나는 타협과정: 대학 및 학과 선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매향, 김계현 (2001). 진로의사결정에서의 타협과정에 관한 연구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111-124.
- 황매향, 박혜영 (2005). 대학생의 진로발달과 학교적응도와의 관계.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8(2), 157-176.
- Arkoff, A. (1968). *Adjustment and mental health*. McGraw-Hill.
- Baker, R. W., & Stryk, B. (1984). Measuring Academic Motivation of Matriculating College Freshmen.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5(5), 459-64.
- Erikson, E. H. (1968). *Crisis*. NY: Norton.
- Gati, I. (1993). Career compromis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4), 416-424.
- Gerdes, H., & Mallinckrodt, B. (1994). Emotional, social, and academic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A longitudinal study of retent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2(3), 281-288.
- Ginzberg, E., Ginsburg, S. W., & Herma, J. R. (1951). *Occupational choices: An approach to a general the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Gottfredson, L. S.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6), 545-579.
- Harmon, L. W. (1971). The childhood and adolescent career plans of college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1), 45-56.
- Hesketh, B., & Durant, C. (1990). Career compromise: A test of Gottfredson's (1981) theory using a policy-capturing procedur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6, 97-108.
- Hesketh, B., Elmslie, S., & Kaldor, W. (1990). Career compromise: An alternative account to Gottfredson's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1), 49-56.
- Lautz, J., Hawkins, D., & Pérez, A. B. (2005). The High School Visit: Providing College Counseling and Building Crucial K-16 Links among Students, Counselors and Admission Officers. *Journal of College Admission*, 188, 6-15.
- Leung, S. A., & Plake, B. S. (1990). A choice dilemma approach for examining in relative importance of sex type and prestige preference in the process of career choice compromis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4), 399-406.
- Scott, C. S., Fenske, R. H., & Maxey, E. J. (1974). Change in vocational choice as a function of initial career choice, interests, abilities, and sex.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 285-292.
- Spencer, M. B. (1999). Social and cultural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 influences on school adjustment: The application of an identity-focused. *Educational Psychologist*, 34(1), 43-57.
- Super, D. E. (1953).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8(5), 185.
- Vandiver, B. J., & Bowman, S. L. (1996). A schematic reconceptualization and application of Gottfredson's model. *Handbook of Career Counseling Theory and Practice*, 155-168.

원 고 접 수 일 : 2015. 06. 28.

수정원고접수일 : 2015. 08. 22.

최종게재결정일 : 2015. 08. 25.

## Relationships between Compromise Types of Preferred University and Major and College Adjustment

Ji-Geun Kim

Ji-Won Lee

Ki-Hak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inquire into differences of students' college adjustment by compromise types between preferred university and major. This study employed a national sample of 2147 freshmen students using the Seventh 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In the present study, compromise types of preferred university and major were categorized into four groups by applying Gottfredson's theory. As the results of MANOVA, the students of choosing the preferred university and major got the higher score in the total score of college adjustment. For the differences of college adjustment level by compromise types, 'preferred university - preferred major' group and 'less preferred university-preferred major' group had significantly higher score in the total score of college adjustment, and the students of choosing the preferred university and 'preferred university-less preferred major' group had significantly lower score in the GPA. The implication and limitation of the study and the suggestions for the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Key words* : preferred university and major, Gottfredson's career compromise theory, college adjustment, college students